

장성군, 내년 군정 시책 밑그림... 신규 사업 116건 발굴

국·도비 공모 등 350억 규모... 인구 소멸 위기 극복·관광 인프라 확충 아이 돌봄 지원 확대·복합놀이시설 조성·스마트팜 육성 프로젝트 등

장성군이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지역 성장을 촉진할 내년도 군정 시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장성군은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2025년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군민 행복', '힐링 관광',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연할 35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16건을 공개했다.

발굴한 사업은 실행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성군이 내년 신규 시책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국가적인 문제이자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4만3000명 대에 머물고 있는 인구를 늘릴 각종 시책 추진을 비롯해 부모·아이 돌

봄 지원 사업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전일 이사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평생 학습 도시 지정', '나다움·주체적 인재 성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행정력을 집중해온 관광 분야는 2025년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장성 관광의 해' 운영을 시작으로 '관수정 문화유산벨트 조성', '상무평화공원 사계절 복합놀이터 조성', '물동골 폭포 명소화 운영', '홍길동테마파크 복합놀이시설 조성', '황미리랜드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 '황룡강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인공(AI)지능 첨단 스마트팜 프로젝트 '청년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한 '장성 특화도 시작 개발', '비건케이(K)푸드 창업학교 운영'을 비롯해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된 428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사업'은 분야별 기본계획 운영을 실시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년 4월까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혁신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적극 시행하고 새롭게 발굴한 시책을 지렛대 삼아 장성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지난 5일 군정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시책 발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민족 대명절 '추석' 고향사랑

4대 관광지 무료... 담양으로 나들이 오세요



죽녹원

소쇄원

17일 하루 죽녹원·메타랜드·소쇄원·가마골생태공원

담양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주요 유료 관광지를 무료 개방한다.

담양군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석 명절의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 당일인 17일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4곳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숲길을 따라 시원한 죽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체험, 죽육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담양군 대표 관광지다. 특히 31만㎡(9만4000여 평)에 이르는 대숲

산책로를 따라 8가지 주제별로 시원한 죽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체험과 죽육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2018년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2019년 전남 지방정원 등록,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산림청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아름다운 숲길에 수년째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담양 속 작은 유럽'으로 불리는 메타랜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에코허브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 생태공원, 맨발걷기길, 어린이 프로방스 등을 갖춘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국가 지정 명승 제40호인 소쇄원(瀟瀟園)은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1503~1557)가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귀향해 지은 정원으로, 조선시대 원림건축의 백미로 꼽히며, 가마골생태공원은 웅변 소재 용추산을 중심으로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이 수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명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고 고향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무료 개방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선물·제수용품 구입은 나주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나주역서 이달까지 80여종 판매

나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나주역 대합실에서 '고향뜨락 나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고향뜨락'은 '내 고향, 내 고향의 특산물을 뜨락(뜰)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다'는 의미로 코레일 유통이 주관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배즙, 참기름, 꿀, 식혜 등 80여종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나주역은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이용하는 교통 요충지로 이번 판매를 통해 나주 농가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를 확장할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향객과 관광객에게 나주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나주를 찾는



'고향뜨락' 판매장 모습.

많은 귀향객과 관광객들이 고향의 맛을 느끼고 지역 농가의 우수한 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매장이 나주

시의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축제 즐기고 신선 수산물 사고 '1석 2조'

강진군, 13~15일 마량미항축제... 트로트·마술 공연, 경품 추첨 등

강진군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13회 마량미항축제'를 개최한다.

매주 토요일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열리는 마량미항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코로나 여파 이후 개

최된 지난 축제와는 달리 다양한 볼거리 및 푸짐한 경품추첨 등 관광객을 사로잡는 프로그램 등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2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무공해 특산물과

정정지역의 신선한 회와 어패류를 신선하고 가성비 좋게 만날 수 있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과 개막식을 뜨겁게 할 식전공연, 유명 초대기수의 축하공연,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마술·버블·별론' 공연까지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해제된 후 2년 만에 열리는 만큼,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많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함평군, 행복농촌만들기 '농어촌공사사장상'

신광면 왕눈이 보여리 마을... 주민 공동 소득 창출 등 성과

함평군은 신광면 왕눈이 보여리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11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기여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농촌마을의 행사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콘테스트는 광역자치도 예산부터 중앙 현장평가의 세밀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마을만들기 7팀, 농촌만들기 8팀, 우수주민 9명, 농촌발전 유공자 4명을 포함해, 관련 주민 및 지자체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함평군 대표로 본선에 진출한 신광면 왕눈이 보여리마을은 2019년 취약지역생활개선개조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여러 사업에 도전하고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통해 ▲주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보여영농조합법인 설립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동소득작물 재배 ▲왕눈이 축제 개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2023년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왕눈이 보여리마을은 최근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 선진지 견학 벤치마크 장소로 급부상하며, 전국 각 지자체 농촌주민들의 방문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주봉군 신광면 보여리 마을 이장은 "마을을 위한 단결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주민들이 있어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보여리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흥군-기업-농협, 쌀 소비 확대 협력

엠디엠그룹·농협 장흥군지부와 협약... 품질 홍보·소비 독려



장흥군이 최근 서울 엠디엠그룹 본사에서 엠디엠그룹,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와 장흥쌀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엠디엠그룹,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와 장흥쌀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엠디엠그룹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 전종순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장흥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엠디엠그룹은 장흥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사 채널을 통해 장흥쌀의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주현 회장은 "농촌 쌀 소비 일환으로 그룹 모

든 직원들에게 쌀 10kg 5000개를 후원복지에 후원, 아침밥먹기 운동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지역 농가와 협력해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는 유통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장흥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쌀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될 만큼 품질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장흥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데 이번 협약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추석 명절 앞 공직 기강 확립

금품 수수·음주운전 근절 등 캠페인

화순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북규 군수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음주운전 근절, 비위행위 신고처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며 정

려한 화순 만들기에 모든 직원이 함께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들은 물론 군정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홍보하기 위해 청사 내에 안내문을 설치했으며 10일까지 읍·면 순회 청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부심이다"며 "당당하고 청렴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